

자바시장, 이민단속 여파 매출 급감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상권이 여름부터 이어진 연방 이민 단속의 여파로 매출 급감과 고객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주말이면 의류와 액세서리를 사려는 인파로 붐비던 이 지역은 최근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의 급습이 이어지면서 고객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에 따른 수색 영장이 다운타운 내 여러 상가에 발부된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남가주 전역으로 확산됐다. 전술 장비를 갖춘 단속반은 의류업체 엠비언스 어패럴에서 위장 서류를 이용해 불법 고용을 했다는 의혹으로 직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18년 넘게 올림픽 멘즈 컬렉션을 운영해온 키아 사디는 "이 일이 벌어진 후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며 "거리는 거의 텅 빈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손님들이 가게 문 열었으나, 안전하나, 다운타운은 팬찮냐"며 전화를 해온다. 그 자체가 장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했다.

사디는 단속 공포가 계속되는 한 고객들이 다운타운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람들 마음 속에 이 문제의 그림자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 단체 '우니온 벨 바리오'의 론 고체츠 역시 이번 상황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패션 디스트릭트는 생산자, 판매자, 구매자 모두 이민자와 이주민이 많은 곳"이라며 "많은 이들이 단순히 발길을 끊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9일 LA에서의 이민 단속 방식에 제약을 두었던 하급심 명령을 해제해 연방 요원들의 활동 재개에 힘을 실어주면서 단속 강화에 따른 지역 상권의 위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공동체 전체 겨냥" 반발 시민단체 비공개 모바일 앱 전환 "끝까지 싸울 것"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 시 인종·언어·직업을 기준으로 한 검문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남가주 이민자 권익 단체와 지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연방 요원들의 단속이 이어졌던 LA 맥아더파크 인근 홈디포 앞에서 노동단체와 변호사, 지역 정치인들이 모여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린 카워시 워커 센터 플로르 델렌데스 대표는 "이번 판결이 우리를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더 단단히 뭉치게 한다"며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이후 남가주에서 81개 세차장이 단속을 받았고, 250명의 종업원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지난주 근무 중 체포된 노동조합 활동가도 포함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원 다수는 LA에서 벌어지는 인종적 공포 행렬의 대행자가 됐다"며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외모·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국인과 아이들까지 겨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CHIRLA의 안젤리카 살라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이민자 공동체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르만도 구디노 LA 워커센터 네트워크 회원은 "이민 요원들이 피부색, 사용하는 언어, 종사 직종을 이유로 사람들을 검문·구금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인종 프로파일링과 차별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이 모든 노동자·이민자·가정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단속 강화에 맞서 권익 단체들은 수십 개 단체가 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



▲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foxla.com

를 투입했다. 자원봉사자들은 홈디포와 세차장 등 단속이 집중되는 현장에서 경고 활동을 벌이고, SNS로 체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권리 알기' 워크숍을 열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현장을 찾아 이민자 지도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LA 주민들이 연방 정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단체들은 SNS를 통해 "향후 단속은 더 빈번하고 조직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계심을 높이고, 감시가 어려운 비공개 모바일 앱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에프레 유니도스 LA'는 남가주 7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단속 강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웨스트 LA 신속대응 네트워크'는 ICE와의 모든 접촉을 기록하라고 당부했다.

단체들은 "홈디포와 세차장 같은 일용직 노동 현장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용기와 단결, 경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JGP WELSHOES

기능성 건강신발
발명 특허 획득
HEALTHY SHOES

건강한 몸을 만드는
기적신발!

**JGP Welshoes로
통증을 끝내보세요!**

신는 순간 혈액순환 촉진, 지압 효과, 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 뛰어난 효과를 제공합니다

신어봐야 알지요! 체험해 보세요! **무료체험 환영!**

골프 신발

운동화

발을 알고 신발을 신으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JGP 기능성 신발은 어떤 신발 인가요?

- ☑ 허리에 강한 힘을 준다
- ☑ 체력을 증진시킨다
- ☑ 신체의 균형을 잡아준다
- ☑ 신체를 교정한다

아스티바, OTC로 구입하세요

OC 부에나파크점 T.714.646.1122

6281 Beach Blvd. #106, Buena Park, CA 90621
(부에나파크 커머스 플라자: 예약문의 방문환영)

LA 올림픽 갤러리아 T.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F,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3층 푸드코트 옆)